

차세대 부흥과 주일학교 성장을 위해

OC교협 세미나, 김만형 박사 강사로 나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가 주최하는 <차세대 부흥과 주일학교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옥 목사)에서 열린다.

OC교협과 나침반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는 'SS 혁신 보고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만형 박사다.

김 박사는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트리니티에 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종교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

다.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18년간 사역했으며,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친구들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배 속 드라마 1,2>, <크리스천축제 1,2,3> 등 다수가 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자녀교육 세미나1

29일(토) 새벽 6시: 자녀교육세미나 2, 오전 10시-오후 4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저녁 7시 30분: 자녀교육 세미나3

30일(주일) 오후 3시: 자녀교육세미나4
 10월 1일(월) 오전10시-오후 12시: 목회자세미나, 오후 1시-3시: 차세대 솔루션 목회자포럼

정하나 기자

자생한방병원, OC교협 목회자 대상 무료진료봉사



자생한방병원 윤제필 원장이 6일 OC교협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러튼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난 6일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국 보건복지부 척추전문 지정병원으로 지난 2월부터 남가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성도들은 무료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의 뜻으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전액 해당 교회로 다시 헌금된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센터, 웰니스센터, 카이로프랙틱센터 등을 갖추고 각종 관절 및 디스크 클리닉, 산후 클리닉 및 자세교정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714-773-7000

주소: 1950 Sunnycrest Drive #2000 Fullerton, CA92835 정하나 기자

작은 교회를 향한 사랑, 합창으로 울려 퍼져



제 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가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주최로 지난 9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부임 앞둔 노창수 목사 “초심으로 돌아갈 터”

남가주사랑의교회 소식지 인터뷰 통해 근황 전해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최종 결정돼 부임을 앞둔 노창수 목사가 이 교회 소식지인 '하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과 현재 심경, 앞으로의 목회 방향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그는 청빙과 수락, 공동의회를 거치면서 “힘들다. 가장 힘든 건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아마 남가주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셔서 잘 이해해 주시겠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제겐) 20, 30대 젊은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며 받은 은혜가 많았다”면서 “지난 10년간 섬긴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행복할 목회를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조직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들의 진가를 드러낸다”면서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고

담임목사님이 안 계신 공백기간을 지내며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는 말씀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했다. 주님의 교회가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분이 삶의 전부 가 되는 목회자”라면서 “남가주사랑의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의 10년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생각을 주셨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는 18살 때부터 알고 지낸 배우자 노미영 사모를 꼽았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큰 영향을 주었어요. 누구보다 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사이즈에 맞는 대가를 지

불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철이 든 게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회자는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끝까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배우자이고, 끝까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부부란 비록 피차 인간적인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노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텐데, 큰 일(웃음)이라며 “그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열정과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노창수 목사는 남가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바이올리학과 델러스신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후 중앙신학교와 선한정치기독교에서 부교역자로 사역 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담임으로 2003년에 부임,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정하나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복새통

- » 신간소개 | 숨겨진 찬송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
- » 서평 |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은 왜 狂人 히틀러에 농락당했나

16면 헬스 & 라이프 여름철에 권할 만한 10대 슈퍼푸드

17면 여행 & 레저 천혜의 자연 속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과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일정

19일 수요일 저녁: 8:00 pm - 10:30 pm 강의 1
 20일 목요일 오전: 10:00 am - 12:30 pm 강의 2
 20일 목요일 오후: 2:00 pm - 5:00 pm 강의 3
 20일 목요일 저녁: 8:00 pm - 10:30 pm 강의 4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천지, 돌파해 나갑니다!

UBM교회 이.단.대.책

신천지 돌파 특별세미나

9월 19일 - 20일

전 신천지 교육장의 신천지 이단 교리 전격 해부

강사: 신현욱 전도사

- 전 신천지 교육장
- 현 신천지 대륙 강의시역자

장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 문의: 562-903-2600

www.ubmchurch.com

여러분의 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성영락교회 '다시 부흥케 하소서(Revival Again)'



김정훈 목사

나성영락교회가 축복교회 김정훈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7일부터 9일까지 'Revival Again(다시 부흥케 하소서)'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축복교회 성도들인 연예인 김사랑, 허준호, 원티드가 참여해 찬양을 이끌어 은혜를 더했다.

7일 첫날 김정훈 목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행3:1-10)이란

제목으로 부흥회를 이끌었다. 김 목사는 부흥사답게 집회 내내 열정을 드러내며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성전 앞 앓은뱅이는 나면서부터 그러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불구자였죠. 복음의 시작점은 다리인데, 은혜의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조계종 여신도협회 회장일 정도였다. 그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하지만 나의 끈질긴 전도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유인즉,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였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머니에게 있었다. 여기서 더 발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를 깨닫게 돼 어머니가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

를 받는 가장 큰 마음"이라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첫사랑에 대한 간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라면서 "앓은뱅이는 성전 미

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며 한 끼 식사를 구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목적으로 그를 바라보며 뒤집어 놓았다. 이게 바로 전도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백(back-ground)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의지

한다고 하지만 물질, 능력을 의지하고 살지 않나. 하지만 베드로는 의지할 데라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말씀을 마치고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10분여간 부흥의 때를 바라보며 합심기도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단 대책 및 예방 세미나 열린다

16일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서



이번 신천지 관련 이단 대책 세미나의 강사로 서는 한선희 목사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제 7회 이단대책 및 예방세미나를 16일 오후 4시에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회장 한선희 목사이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과 신천지의 포교 전략, 그들이 사용하는 전도 도구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단대책연구회는 "세미나를 여는 당일, 신천지 이만한 교주가 생일을 맞아 체육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도 크게 연다고 알려졌다. 또 미국 서부지역에 한국에서 교육받고 온 상당히 많은 추수꾼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단대책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성경적 식이요법으로 건강 되찾는다

지구촌농업선교회 LA 진료소 오픈감사에 배 드려

성경적인 식이요법으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지구촌농업선교회 대표 김갑선 박사가 내추럴테라피 LA 진료소를 열고 감사예배를 5일 오후 7시에 드렸다.

이날 설교는 이현수 목사(The Church LA)가 시편 104편 1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힘있게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도의 장소는 기독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 병원 등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이면서 한의사인 김갑선 박사는 "저 역시 병원에서 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다"며 "많은 분들이 정말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서 치유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지구촌농업선교회 LA 진료소를 개소했다.

반면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환자들을 볼 때 마음이 두렵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같다. 부담도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환자들과 김 박사의 사역, 농업선교회의 사역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후원자들의 도네이션으로 운영되는 LA 진료소에서는 앞으로 김 박사가 격주로 진료를 행하게 된다. 김 박사는 새크라멘토에 20에이커 크기의 땅에서 100% 유기농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쓰일 채소, 과일 등을 재

배하고 있다. 김갑선 박사는 서울대 농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토양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M.Div. 과정은 부산고신대에서 밟았으며, 미국에 건너와 내추럴테라피를 공부, 그리고 한의학 공부를 통해 한의사가 됐다. 그의 강의는 이미 유명해 북미주에 수십만명이 그의 CD 강연을 듣고 도움을 얻었으며, 7천여 명이 진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주소: 3000 W. 6th St. Los Angeles, CA90010/ 문의: 530-921-3663, 213-747-0168, 213-505-7067

토마스 맹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 경제,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다들모직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로데오 갤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 323.454.7872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후지타와 함께라면 더욱 행복해 집니다

사랑받는 명품!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세계 최고 전신안마기 **KN7005R**

특대일 바값 \$3,900 +Tax 5년 워런티 24개월 / 12개월 무이자 플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TOURMALINE + ALPHA 세계최초 특허품

- 장거리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분
-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분
-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 분
-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분

강력한 음이온 + 원적외선 발생 \$30 +Tax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숙한 신앙공동체

나성금란교회 장로 은퇴, 권사·집사 취임예배 드려

사우스베이에 위치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윤선식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감사예배를 겸해 장로 은퇴, 권사, 집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 순서는 강현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가 감사기도를 했고 김웅민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손에 들리운 햇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장로 은퇴 찬양식 및 취임식 순서에서는 유양진 목사(안약교회),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직제심사위원장)가 문답을, 오경환 목사(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코스 회장이 권면을, 케시 윌 본 목사(동비치연합회 감리사)와 김건도 목사(웨슬리감리교회)가 축사를 맡았고 정소영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15명의 집사 및 1명의 명예집사가 취임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은 EM 출신이라 의미를 더했다. 또 7명의 권사 및 3명의 명예권사가 새롭게 취임했으며, 이 교회 장로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취임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권사 및 명예권사 10명이 윤선식 목사로부터 취임패를 받았다.

오랜 기간 시무해 온 박구산 장로가 은퇴했다.

한편, 이 교회는 30주년을 맞아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내달 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풀러신학교 피터 강 교수를 초청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를 열고, 내달 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소리의엘의 지명현 목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내달 12일

부터 14일까지는 장학봉 목사 부흥성회를 갖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지향하는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는 1982년 5월 10명의 교우가 김건도 목사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97년 윤선식 현 담임목사가 부임한 이래 탄탄한 중흥교회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한나 기자

큐티 통해 만남에서 동행으로

미주두란노 천만큐티운동본부 '큐티로 세우는 교회 컨퍼런스'



큐티 전문 강사 김은애 사모가 말씀 묵상과 적용에 대해 강의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1:1~3)

미주두란노 천만큐티운동본부(미주두란노서원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첫날 강사로 '큐티라이프'의 저자 김은애 사모가 '더 깊은 묵상과 적용, 어떻게 잘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김 사모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다는 의미"라며 "또 말씀에 뿌리를 둔다는 것으로, 그러지 않고는 삶 속에서 말씀을 좇아 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에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과 동행으로 삶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행동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사단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삶에 흡수되도록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김 사모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짐이 더 많아지는 현실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면, 나무가 자라면서 잎이 무성해져 새가 와서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옛날 같았으면 몸져 누웠을텐데, 큐티를 1년 했더니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며 "사람들과 함

께 큐티를 하면서 어느덧 변화가 일어나 열매를 주는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 강조했다.

김 사모는 큐티 본문을 읽을 때, △ 들는 자세로 읽는다 △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반복해서 읽는다 △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라고 여기며 읽는다 △ 육하원칙의 질문을 던지며 탐구하는 자세로 읽는다 △ 오감을 열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 △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에 흐르는 감정을 이해한다 △ 말씀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는다 △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등의 태도를 조언했다.

이어 "큐티는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다. 이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말씀을 볼 때 처음 대하듯이 읽고, 마치 연애편지를 읽듯이 성경책을 보고 사람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묵상에서 적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마음에 닿는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한다"며 "그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또 그 말씀이 본문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한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감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한다. 그럴 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를 살펴봐야 한다"며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삶이 떠오르고 연결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중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가 '큐티를 엔진으로 하는 교회', 이정엽 목사(미주두란노 천만큐티운동본부장)가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QT', 백은실 집사(커피브레이크 국제 대표)가 '살림!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 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위한 성가합창제

제 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가 목사장로부부 찬양단 주최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단장 박응태 목사는 "지난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도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를 열었다"며 "이민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불협화음이 내는 가정과 교회가 화음을 이루 중소형교회의 찬양을 활성화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상임고문 정시우 목사는 "이 성가합창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뜻을 차세대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귀하고 값진 공연이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전중재 교수가 음악총감독으로 기획한 이번 합창제에는 월서한인장로교회, 오렌지교회, 주님세운교회, 나성열린문교회, 감사한인교회, 미주 기독교목회총연합회, 글로리아합창단, 대광OB코랄, 조이풀선교총연합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출연했으며, 특별출연으로 이와 Vocal Ensemble and Soloist, 피아노 특별연주로 Mia Shelton이 출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연합합



성가합창제에서 대광OB코랄이 '시편23편' 등을 불렀다.

창으로 장식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지난해 7월 17일과 11월 27일에 각각 제 1회 성가합창제와 제 4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목회자 자녀들 22명에게 500불씩, 총 1만1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이번 장학기금을 위해 정기공연이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이 마감된다. 신청자격은 남가주 지역 건전한 교단의 교역자 자녀로 6학년에서 대학 4학년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수여자는 한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찬양단 홈페이지 www.pecpc.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증 복사본 또는 재학증명서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3주간의 주보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낼시 겹봉에 '장학생 서류'라고 기입해야 하며, 제출처는 1931 S. Harvard Blvd. #1 Los Angeles, CA 90018이다.

주최측은 지난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되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작은 교회가 선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310-242-3668(박응태 목사), 714-393-5622(전중재 교수), 714-608-1482(박근덕 목사)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차세대 없는 1세대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김용훈 목사 “이민교회, 지금이 차세대 담는 극적 전환점”

“인생에는 생사를 가르치는 중요한 선택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한 이민교회들은 차세대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택의 극적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5일부터 8일까지 버지니아에 소재한 열린문교회에서 열린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에서 김용훈 목사(열린문교회 담임)는 “다음 세대를 품는 이민 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며 “대학을 가면서 대거 ‘조용한 탈출’을 감행했던 2세대들이 가정이 생기면서 뿌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올 한인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가 쓴 논문에서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를 밝힌 김 목사는 ▶민족성 중심의 교회에 대한 회의감 ▶조직상의 한계와 지도력 발휘의 부족 ▶세속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간접적으로만 물려받은 신앙 ▶이민교회 미래 방향의 불확실성 ▶부정적인 교회 경험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송민호 목사를 만나 대화하면서, 논문을 다시 쓴다면 꼭 한가지

‘차세대 리더십의 부재’를 추가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 김 목사는 ‘상호의존모델(1세대와 2세 교회가 독립하되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았다.

“교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재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며 비효율적 투자에 수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엄청난 돈을 들여 멕시코 선교는 가면서 지역 히스패닉교회가 성전을 좀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 줍니다. 세계에 흑인이 가장 많은 곳이 뉴욕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바로 이 곳이 선교지가 되었는데, 예전 방식만 고수하려고 하니 자꾸 부대가 쪼아집니다.”

그는 현재 열린문교회의 상호의존 모델을 소개하면서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없으면 어떤 단체이건 화석화 된다”

고 전하며 “지난 몇십년 간 우리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도움이 안된다면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저도 상호의존모델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2세와 함께 하는 성경적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를 들여다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한 후 변화를 위한 몸부림(행 6:1-6)이 있었을 때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로 세워진 이들 중 스테반, 빌립 등은 차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상호의존모델이 잘 정착되면 세계 선교훈련의 장소로 쓰일 것이라 비전을 가지게 됐다”는 김 목사는 “2세대는 이민교회에 상처가 많다. 그래서 1세대들이 참아주고 덮어주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훈련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



메시지를 전하는 김용훈 목사

다는 것을 인식하고 2세들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 이민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상호의존모델이란 말은 20년 전부터 나왔지만, 많은 이민교회들이 너무 많은 실패를 맛 봤다. 하지만 열린문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작은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

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눴다.

그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세대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은 선택하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는가?”라며 “저도 1세대 목회만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답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인내하며 이 길을 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일어나자”고 권면했다.

권나라 기자

김춘근 교수 “크리스천 사립학교가 대안이다”

자마가 부르짖는 회개 그리고 대안

30대에 악성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섰다가 극적 치유를 경험하고, 2004년 척수암으로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김춘근 교수는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국의 위기를 보여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72세의 나이에도 찌뚱찌뚱한 목소리로 “회개와 미국의 위기”를 마치 선지자처럼 선포하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미국을 누빈다. 바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개교회 성장에만 급급해 시대 조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봐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춘근 교수가 6일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에서 “미국의 현실”을 강연했다. 김 교수는 현대 미국 위기의 근원을 분석하면서 “1960년대 학생 민중운동, Hippie Movement,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The Woodstock Music Festival,

Vietnam Moratorium, Black Parent Movement’ 등을 통해 반문화운동이 득세하고, 향후 40~50년 간 미국의 위기를 가져오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극좌 자유주의 교수들과 사상가들이 우수한 리더들을 선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고, 미 주류 특히 문화를 완전히 혁명하는 거대하고 강한 세력을 만들기 시작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교육, 예술, TV, 미디어,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김 교수는 “오늘날 헬리콥터를 보자. 그들이 뻗어, 퀴바디스, 십계명을 만든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모두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것 아니면 신비한 신들을 만들어서 미신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문화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대학은 어떤가? 아이비리그 중 한 대학은 강당에 주말마다 술과 섹스 파티가 벌어진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신다. 이런 일이 한번은 폭스뉴스에 보도돼 총장이 바뀌기도



김춘근 교수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비리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면이다. 우리는 종종 학교와 교육을 혼동한다. 좋은 대학만 강조하다 더 중요한 교육을 놓친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는 교육을 해야 대학에 가도 악한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겠나?”고 물었다.

이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관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살아있는 생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 회복을 위한 회개를 촉구했다.

또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회들이 적극 사립학교 설립에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향후 20~30년 내에 누가 미국과 세계를 점령할 것인가? 누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인가? 크리스천 자녀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미국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입니까?”

김 교수는 “캘리포니아는 SB48 법안의 통과로 2014년부터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공헌’을 공식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유치부에서부터 성 정체성을 토론시키며 ‘성’에 관계 없이 좋은 사람끼리 살면 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공립학교, 대학교에는

이대로라면 소망이 없다. 영재 교육을 하는 크리스천 스쿨을 만들어 투자해야 한다. 300명 이상 교회는 초등학교를, 500명 이상 교회는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다. 미래 미국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15년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세상에 내보내자”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서부에서는 주님세운교회, 시애틀형제교회가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시작했으며, 워싱턴 지역에서는 워싱턴성광교회가 내년 초 크리스천 사립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마 역시 세계적 크리스천 실력자들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지도자훈련원(혹은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을 세워 차세대 리더를 훈련시키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GLDI는 2007년부터 매년 40일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 인격과 리더십 등을 이민교회 차세대들에게 교육하며 훈련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감각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퓌!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한의원)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웨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징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영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생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Indian University
 - Lee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문 최상의 장학금 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 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상담학박사(D.C.C)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신학 Ph.D	48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목적

출애굽기 9:13-2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출 9: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 내 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니 21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처럼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인권을 유린 당한 세월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 신앙의 초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후사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창세기 15:5-6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실수 중에 실수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5:9-14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증거(표적)를 보기를 원하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죄 값으로 팔려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지낸 400년의 세월 동안 호적이 없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있었기에 영적인 소망도 없이 애굽의 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죄 값은 이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될 때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종살이 하느라 애굽인들의 종으로 의식화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깨우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찢과 꿰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해도 그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써 궁에서 생활하며 세상 문물의 최고 학문을 수학(修學)하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땅으로 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40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기사(奇事)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유로운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출9:20-21).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가하는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역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병자들이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균을

없애 주시는 체험을 하고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을 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리시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이사야1:19-20)”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생계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이지만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회교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34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했으며 사도행전 2:4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이 이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전해야 하며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단에게 점령 당해서 이성을 잃고 사단의 울무에 걸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희불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멸

시하고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과 불신앙의 형벌로 지옥의 고통을 앞당겨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39에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계심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령이 사람을 미치게도 하며 불행하게 해 생지옥을 만드는 것을 보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야 할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꾸어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수고는 유익한 성과를 거두게 하고 불신앙으로 심는 죄악은 사단이 열심히 가꾸어서 불행하게도 저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말씀이 심판하는 칼날이 되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죄 값을 치르다가 결국 꺼지지 않는 유희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쓰임 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실패한 인생들까지도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 능력을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선교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선교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중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u.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회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선: Sexs I-20 발행/ 신학교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박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건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 회 부회장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시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앨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술종합보험, 크리스찬캐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제이남가주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제 5대 총장 김인수 박사의 이임 및 제 6대 총장 이상명 박사의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12년 9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나성영락교회 EM 예배실 (본당 길 건너편)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 227-14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e-mail: office@ptsa.edu
www.ptsa.edu

목회자 동정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자마(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강사로 나섰다. 한편, 오는 27, 28 일에는 북가주 산호세에서 열릴 자마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또 17일부터 21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창립 30주년 기념대회 및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다.

방익수 목사(얼바인 사랑의방주교회) 6집 앨범 발매 기념 투어



얼마전 6집 앨범 <불가능 가능케 돼(Nothing is Impossible)>를 출시한 찬양사역자 방익수 목사가 지난 9일 집회차 한국을 방문했다. 방 목사의 이번 방한 일정은 15일 까지 계속되며, 9월 말에는 일본에서 앨범 발매 기념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HYM 더글라스 김 대표 사우스베이 집회 준비에 한창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더글라스 김 대표가 오는 22, 23일 오후 7시 토렌스 초은교회에서 사우스베이 첫 집회를 앞두고, 7일 부에나팍 소재 한 식당에서 청년사역자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어 11일 LA 행복한국교회에서 이번 청년집회를 위한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교회 단신

2012 인도차이나 선교사대회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2012 인도차이나 선교사대회를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다. 이번 대회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수백여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회와 포럼을 갖고,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문의: 714-296-4360

ANC 온누리교회

LA서 정기 목요찬양예배 개최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가 오는 1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LA목요찬양집회를 연다. 장소는 벨앨장로교회(변영익 목사, 857 S. La Brea Ave. LA)다. 주차는 인근 뱅크오브아메리카(5304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에 하면 된다. 문의: 213-215-8643 (이종길 장로) 213-247-4833 (김의구 목사)

미주장신 신임총장 취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오는 9월 18일 오전 나성영락교회 EM예배실(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있다. 제5대 총장 김인수 박사가 이임하고 제6대 총장에 이상명 박사가 취임한다. 이 박사는 총장에 취임하며 양질의 신학 교육,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문의: 562-926-1023, www.ptsa.edu

방주교회 독거노인 위한 무료점심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이 이웃에게 훈훈한 나눔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가 13일 정오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점심 나누기' 행사를 연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필그림 루터란 교회에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참석한 한인 노인들에게 사랑의쌀 한 포대씩 전달

한다. 이 교회는 매월 한 차례 한인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 오고 있다. 문의: 213-663-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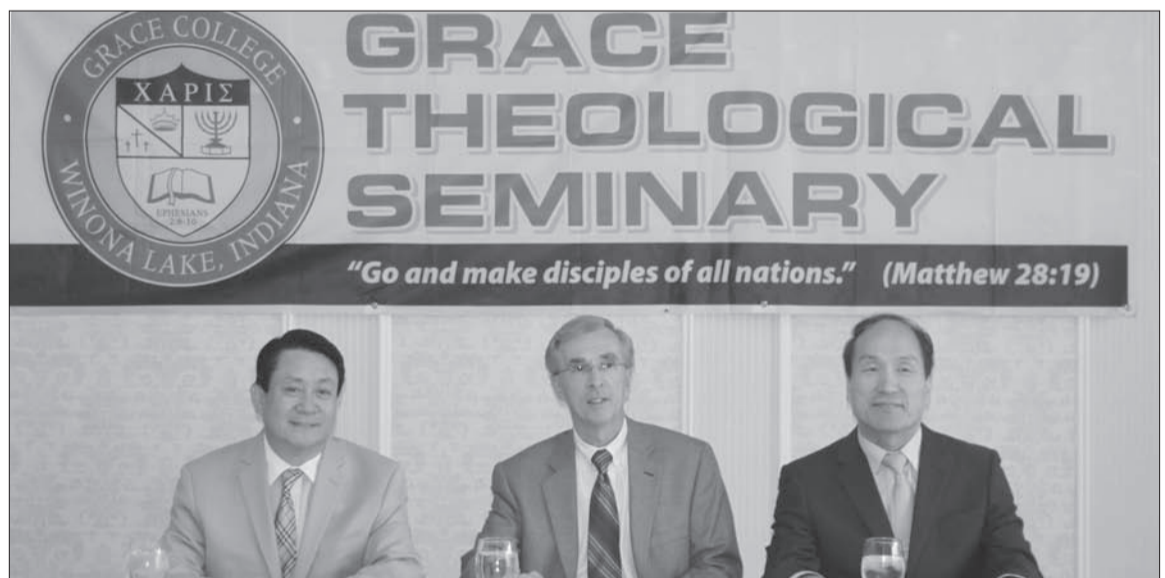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특별집회

어머니 기도회 특별집회(영화배우 허준호 집사 간증집회)를 9월 20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연다. 가을학기 평신도 훈련이 9월 23일부터 12월 초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 전교인 전도축제를 위해, 300명의 기도용사와 드라마 헌신자, 바자회를 섬길 사역자를 모집한다.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한글학교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글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 23일 오전 10시이며 대상은 1-12학년이다. 등록기간은 9월 9일, 16일, 23일이며 16일 오전 10시에 배치고사를 치른다. 문의: 714-336-7300

그레이스신학교 한국어 박사 과정 설명회



왼쪽부터 허귀암 목사, 토마스 스톨터 박사, 박시경 박사

미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그레이스신학교(Grace College & Seminary) 임원들이 LA를 방문해 학교를 설명하는 시간을 5일 오후에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그레이스신학교 한국어 학위과정 운영책임자 토마스 스톨터 박사, 행정담당 김정은 박사, 미주 코디네이터 허귀암 목사가 참석했다. 칼빈주의와 경건주의에 바탕을 둔 그레이스신학교는 1937년 독일 기독교인들이 인디애나주 위노나레이크에 설립했으며, 현재 400명의 학생과 180명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하면 학생수는 15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인 중에는 최초로 분당 할렐루야교회 원로인 김상복 목사가 조직신학과 신약학으로 Th.D. 학위를 받았다. ATS로부터 인가받은 학교이며 특별히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선교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이 개설돼 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승인된 타학교의 석사 학위 18학점을 인정받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박사 학위까지 이를 수 있다. 이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본교 수업과 익스텐션 캠퍼스 수업을 완성하면 된다. 케네스 빅클 박사, 제프리 길 박사, 매튜 하몬 박사, 토마스 스톨터 박사 등 유명한 교수진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위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강의는 모두 한국어로 통역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사과정 수업이 한국어로 통역이 되는 유일한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사학위 과정의 한국학생 15%가 장로교 소속 목회자이다. 한인교와 관련된, 이 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선교학 박사과정이다. 그중 특히 타 문화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되고 있다. 선교학 석사 과정은 온

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선교학 박사 과정과 목회학 박사 과정은 인디애나 캠퍼스와 온라인 강의, 익스텐션 캠퍼스 강의로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은 그룹 채팅과 동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스톨터 박사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을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며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 현지인들에게 전달하고, 현지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신학교의 익스텐션 캠퍼스는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인도 델리, 호주 시드니, 캄보디아 프놈펜,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있다. 한편, 이 학교는 한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mail: parkrc@grace.edu 문의: 574-372-5100 ext. 6335(박시경 박사), 714-308-7308(허귀암 목사) 토마스 맹 기자



수업을 마친 후 기념촬영.

대한신학교 토렌스분교에서 특강 열려

미주 대한신학교 토렌스 분교에서 지난 9월 4일 토마스 스톨터 박사를 초청해 "선교지에서의 문화 차이에 따른 이해와 소통" 특강이 이뤄졌다. 현재 그

레이스신학교 한국어 학장인 그의 강의는 같은 학교 박시경 디렉터가 통역했다. 한편, 대한신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310-404-6219(학장 김영규 목사) 주소: 3521 Lomita Bl. Torrance, CA90505

토마스 맹 기자

www.rosehills.com

추석

가족간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로즈힐 공원묘지

올 추석에는 100년 역사, 1,440에이커, 170만평의 단일묘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로즈힐에서 그리운 가족의 추억과 만나세요.

추석맞이 로즈힐 투어 이벤트 9월 22일(토) ~ 23(일) / 9월 29일(토) ~ 30(일)

로즈힐을 방문하시면 한국인 카운셀러들의 친절한 상담과 로즈힐 투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한국어 문의 1-877-767-8850

아름다운 해피맨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y

[이 사람] 아버지가 개척한 아마존 선교 아들이 이어가는 아마존 복음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 아마존 밀림 속 마나우스에 살고 있는 유 빠울로 선교사. '선교사'라는 호칭보다는 다른 아마존 사람들처럼 그냥 그곳에 살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친구'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은 유 선교사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유지화 목사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선교 물품을 마련하고자 애틀랜타를 찾은 유 빠울로 선교사를 만나 아마존 선교 이야기, 1세대 선교사인 아버지와 이를 이어가는 2세대 선교사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열 아홉 살 때였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돼서 아버지께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아마존을 개척하셨는데, 다른 두 분은 중도에 그만 두시고 아버지는 상파울로에서 목회하시던 한인교회 건축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마존에서 나오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버지는 저보고 다른 선교사가 올 때까지 잠시만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하셔서 한달 정도 있을 계획으로 돈 300불이랑 옷가지 몇 개만 들고 들어갔죠.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군말 없이 갔어요. 그렇게 3년을 머물게 됐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선교센터에

가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래된 집이었다. 지붕은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내리는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대로 된 시설이라고는 변기 하나 뿐. 그나마 수도이었다고. 뼈죽 튀어 나온 수도꼭지는 막아 놓은 막대기를 빼면

19살에 아버지 대신 잠깐 갔던 아마존

선교사 아닌 현지인으로서 그들 섬기며 복음 전파

시커먼 강물이 그대로 솟구쳐 올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밤이 되어 옷가지 몇 개를 깔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 날아와서 물고, 기어와서 무는 벌레가 말도 못할 정도였다고. 버티고 버티다 3개월이 지나고 상파울로의 아버지에게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걸었던 유 빠울로 선교사는 울먹이는 듯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침대 하나만 사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유 선교사는 아버지가 선교센터를 사 놓기만 하고 직접 보지는 못해서 이런 데에 나를 보냈겠지 생각하며 위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환경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뒤에

찾아와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던 아버지가 계속 있으라고 하고 다시 떠났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유지화 목사는 “빠울로가 심성이 착한 아이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를 다 했을까 싶었어요. 교

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리다 아들을 잃어버리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건축이 대략 끝나자 마자 달려갔죠.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거지꼴이었어요. 아마존에서 사업을 하던 한 집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잘 키우셔야지, 동물도 못살만한 곳에 아들을 놔뒀다’면서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집도 싹 고치고 냉장고, 에어컨, 침대도 사서 놔주고 싱크대도 설치해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선교지를 누군가는 돌봐야 하니 남겨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어쨌거나 열 아홉 나이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교를 시작한 빠울로



아버지 유지화 목사와 아들 유 빠울로 선교사

선교사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존 사람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시작할 수 있었다. 어차피 온 것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찬양을 통한 전도였다. 노방 전도에 은사가 있는 현지 목사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 마나우스 시내 공원에서 찬양 집회를 하자 한달 만에 4-500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렇게 텔레비전 방송까지 나오게 됐다.

3년이 지나 다른 선교사 부부에게 사역을 맡기고 미국으로 오게 된 빠울로 선교사는 10년간 다른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아마존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저 그림고 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유지화 목사는 “한번은 브라질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빠울로를 바꿔달라고 해요. 한 심 분을 통화하고 끊길래 여기 브라질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아마존에서 온 전화라고 해요. 무슨 급한 일 때문인 줄 알았더니 아들 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그 정도면 아마존 사람 월급 반이 들 정도로 통화비가 비싼데도 말이예요. 아들이 그들과 가진 관계를 보고 많이 느꼈죠. 선교사와 선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샤프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2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정글마을 짜우교회에서 첫번째로 가진 마을잔치검 부흥회

9개 교회 돌봄과 교육 및 선교에 매진 중

심부전증 치유받고 더욱 큰 사역 감당하게 돼

교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친구로 받아들여진 거죠. 미국에 올 때도 친구들이 공항에 몰려 가서 표를 이틀 뒤로 미루고, 밤새 찬양집회를 하고 환송을 하고 보내줄 정도였으니

2005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부르심에 응답해 아마존으로 들어간 빠울로 선교사는 9개의 교회를 돌보는 사역과 교육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유지화 목사는 교회 건축에 은사가 있어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다면, 빠울로 선교사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아마존 현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7년 전, 막 아마존 선교를 시작할 때 배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하는 밀림 속 부족들이 대표 한 명을 뽑아 유지화 목사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 마을에 영리한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가 없어서 못 배우고 있으니 학교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부탁 때문이다. 유 목사는 그것이 마음에 빛으로 남아 학교 건물과 기숙사를 지었지만 재정이 부족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는 신학교를 열어 전도된 현지인들 가운데 소명을 받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고 훌륭한 교수진을 보충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신으로 현지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사역에 매진한 탓일까. 몇 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심부전증으로 빠울로 선교사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고 한다. 상파울로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나간 빠울로 선교사에게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몸이 아파 사역을 떠나면서 하나님 주신 일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낫고 돌아와 보니 더 큰 일들을 많이 주세요.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열약한

환경에서 힘들게 사역한다고 안타까워 하시고 눈물도 흘리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로서 아니라 현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사는 것이고 그게 뭐 특별히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야죠.”

빠울로 선교사는 아마존 선교 혹은 오지 선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이고 낙후됐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나무로 대충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아마존의 경우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1만 불 가량이면 충분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십 년만 지나도 이런 나무 건물은 썩어 버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아마존 현지는 벽돌 공장이 없어 전부 외지에서 들여와야 해서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또 단기 선교를 올 때에도 현지인들은 미개한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려는 낮은 마음을 갖고 와 달라는 부탁이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느냐는 질문에 빠울로 선교사는 ‘극장식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답했다. 음악선교단으로 브라질 한인교회들을 돌며 청년들을 깨웠던 기억이 있는 만큼 문화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한국인들과 비슷한 심성을 가진 브라질 사람들에게 문화는 훌륭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당연히 선교사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청년들에게 열린 마음, 새로운 것을 수용하시는 태도, 그리고 현지인들과 같이 지려고 노력해 오신 삶의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선교의 방향이고 전락입니다.”

유 빠울로 선교사의 사역은 페이스북 페이지 'Amazonas Holiness'를 통해 볼 수 있다. 박현희 기자

교육계 · 시민단체 반대에도 ‘XY그녀’ 방영 강행

“이미 4편 녹화 완료” ... KBS 시청거부 돌입



트랜스젠더 토크쇼에 반대하며 6일 오후 KBS Joy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 KBS반대국민연합 제공

교육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 Joy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토크쇼 (XY그녀)가 7일 오전 12시 20분 방송을 강행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학부모와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트랜스젠더 부추기며 자녀교육 망치는 저질방송 KBS 반대 국민연합'은 첫 방송 전날인 6일 정오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사와 상암동 KBS Joy 정문 앞에서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방송을 강행할 경우 ①KBS 시청료 납부 거부 범국민 서명운동 ②KBS 대국민 시청 거부운동 ③KBS 김인규 사장과 KBS Joy 김영국 사장의 퇴진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20명의 성전환자와 함께 토크쇼 진행자로 국민MC이자 SBS <동물농장> 진행자인 신동엽 씨가 발탁된 것을 놓고 학부모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국민MC 신동엽 씨가 무분별하게 성전환자 토크쇼 진행을 맡으면서도 온 가족이 보는 프로그램인 <동물농장> 진행을 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방송을 신 씨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성적 상황을

동성애자 흥석천 씨와 신동엽 씨가 함께 출연해 방송 미디어로 미화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일생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에서도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강력한 항의에도 ‘국민의 방송’ KBS가 시청자 의견을 무시한 채 <XY그녀>를 방송한 데 대해 더더욱 분노한다”며 “우리는 이 시간 이후 온 힘을 다하여 성전환(트랜스젠더)을 부추기는 저질방송 KBS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문화적 요인이며 학습된다는 사실은, 농어촌보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에서 동성애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정서를 순화시키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영방송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현재 4편까지 녹화가 완료돼 예정대로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냈고, 첫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단식농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설교자 중심에서 회중 중심의 예배로”

굿미션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제1회 실천신학 컨퍼런스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익산 중앙동 이리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실천신학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회복과 건강한 목회,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행되는 목회지도자 네트워크 과정으로, 지난해까지는 16주 과정으로 서울에서 작은교회 목회자들을 섬겨 왔으나 지방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나를 보내주소서(사 6:8)’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는 4일간 교회론과 목회신학, 종교·목회사회학과 설교학, 예배학 강의 등이 이뤄졌다. 강의는 김용성·박종환·이승진·정재영·조성돈 등 실천신대(총장 은준관 박사) 교수진들과 조성천·노지훈(익산품이있는교회) 등 익산지역 목회자들이 맡았다.

박종환 교수는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으며, 매우 현실에서 부딪치는 주제인 ‘예배학’에 대해 강연했다. 박 교수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ineffable)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absence)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면의 모순과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예배학이라는 학문”이라며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 세상에 대한 절망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를 알

아가는 장(場)”이라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예배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외형적·물질적·가시적·자본주의적·성공주의적·자아중심적 종교의 모습을 보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에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진 ‘유기적 예배’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한국교회 예배 상황에서 유기적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예배는 지나치게 설교에 집중돼 그 성공여부가 설교에 달려 있고, 이는 인도자가 설교를 통해 감동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나타난다”며 “나아가 예배의 중심에 설교자가 서게 돼 그가 우상화되거나 개인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되는 위험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예배는 공동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이나 신학적 강조점이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혁자들이 주장한 ‘지속적 개혁(Semper Reformanda)’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사회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몸’과 같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예배는 성육신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 이 세상 물

질과 피조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이 세상 피조물의 물질성과 육체성이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록해지는 것이 유기적 예배가 추구하는 신학적 목표이다. 이는 한 개인의 영적 회심이나 체험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회심과 회개를 추구하며,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몸과 같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유기적 예배는 찬양과 설교로 구성된 단순한 예배 형식을 넘어서는 보다 다감각적인(multisensory) 예배이고, 음악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예배이다. 특히 비주얼과 교회력에 따른 색깔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전적 요소를 회복하고 참여적인 모임의 예배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머징 워십(Emerging Worship)’이 유기적 예배의 구체적 사례라고 밝혔다.

박종환 교수는 “예배 공간에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간직돼 온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분을 만난 공동체, 개인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고, 그 공간에서 성도들은 울고 웃으며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며 “예배의 경험은 태도와 감정, 자기이해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에 예배신학은 이미지와 상징, 동작과 음악, 건축과 언어, 설교자의 위치와 자세 등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을 마무리했다.

이대용 기자

GMS 사태... 미주사무소는 매각키로

정기총회 열고 박무용 이사장 등 임원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총회세계선교회(GMS) 제 15회 이사회 정기총회가 6일 오전 경기도 화성 GMS훈련원에서 열렸다. 총 12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총회는 새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각부 보고, 예산안 심의, 사업계획안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징계를 풀어준다는 전제를 확인한 뒤, 새 임원진에 이를 위임했다. 논란의 핵심이던 미주법인사무소는 매각하기로 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GMS는 미주법인사무소 구입 과정에 대해 몇몇 선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진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 건은 현재 인천지검과 서울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상황이다.

임원선출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전임 하귀호 이사장 후임으로 박무용 목사(대구 황금교회)가 단독 입후보해 2년 임기의 신임 이사장에 올랐다. 다른 임원들과 달리 이사장은 GMS 상위 기관인 총회가 선거를 주관한다. 박 신임 이사장은 “전임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9명을 뽑는 부이사장에는 9명이 입후보해 선거 없이 박수로 모두 추대됐다. 나머지 부서기와 회계,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는 단독 입후해 선

거를 치르지 않았고 서기와 부회계만 다수 입후보로 인해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이사장에 고영기·민찬기·김근수·최인모·김기철·박재신·박창식·박근필·김정훈 목사 ▲서기에 장봉성 목사 ▲부서기에 김중혁 목사 ▲회계에 김찬근 목사 ▲부회계에 현상민 목사 ▲회록서기에 문상무 목사 ▲부회록서기에 이억희 목가 각각 새 임원으로 뽑혔다. 이사장이 임명하는 총무에는 전임 옥성석 목사에 이어 함중수 목사가 올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도 개정했다. 정관개정안은 임원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고, 본부장 제도를 삭제하며, 본부 시스템을 기존 행정총무·지역총무·훈련원장에서 본부총무·선교총무·훈련원장으로 개편했다. 지역위원회 구분은 기존 24개에서 18개로 축소했고, 장기선교사의 시무 연한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선교사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다.

한편, 총회 전 개최예배에서 설교한 GMS 중경이사장 조중기 목사는 “부족한 모습은 서로 채워주면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세계선교라는 공통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손을 잡고 새 출발하자”고 권면했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트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안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모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는 빛이요 선교회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들타운 474 Crocker St.)
1부거리에배 오전 7:00
2부서터리에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성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 친, 초 정신의 효를, 바른교회관의 효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예배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평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원**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업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림절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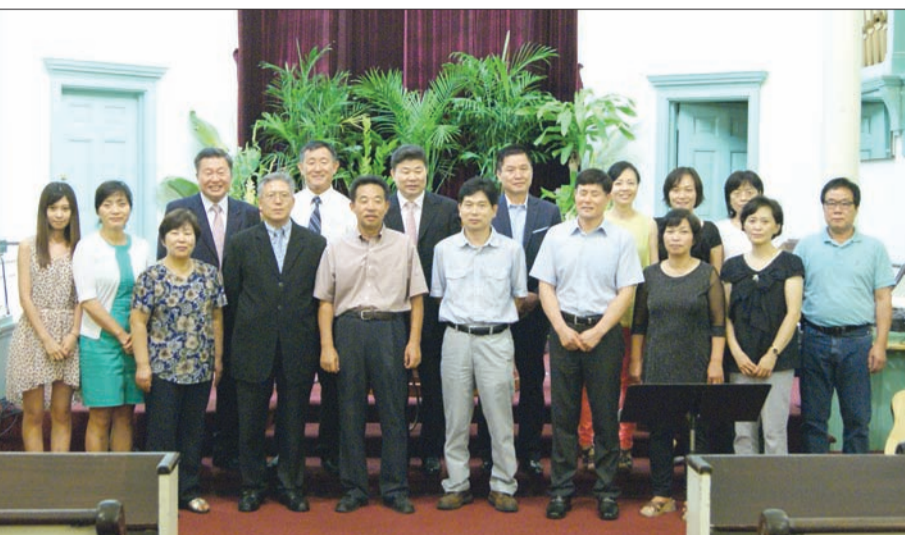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선교 위한 한인교회 연합체 구성돼

뉴욕-뉴저지 교회들의 선교 시너지 효과에 기대



교회연합선교회가 7일 우크라이나 선교연합 파송예배를 드렸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연합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가칭)교회연합선교회가 발족,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합선교의 장을 열어나간다.

큐기든성신교회(이재봉 목사), 열방침례교회(레너드 김 목사), 주양장로교회(김기호 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윤순원 목사), 한길선교교회(한석진 목사), 은혜와평강교회(김학룡 목사) 등 6개 교회는 7일 밤 큐기든성신교회에서 '2012 우크라이나 선교연합 파송예배'를 드리고 협력선교의 좋은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이 우크라이나 선교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주일간 진행된다.

이들 교회는 지난 7월 초에도 과테말라에 15명의 연합선교팀을 파송하며 사실상 교회연합선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선교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작은 교회들에 협력 선교의 문을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교회연합선교회의 대표적인 공식활동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첫 리더십은 김기호 목사가 맡게 됐다.

김기호 목사는 "뉴욕과 뉴저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일꾼들이 키워져 있어 교회들이 연합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어느 교회든지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와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뉴욕과 뉴저지의 선교연합이 시작된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했다.

교회연합선교회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선교를 원하는 교회들과 언제든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으며, 과테말라에선 300명을 수용하는 센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아이티의 경우 선교사연합회가 있어 현지의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니카라과와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을 총괄하고,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계해 유럽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아이티는 서부 아프리카와 연결이 된다.

뉴욕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합선교를 위해 노력해 온 권순원 목사는 "재정이나 인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연결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남미나 구 러시아권이나 동남아권의 선교를 많은 교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언제든 연합선교회에 참여해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7일 열린 '교회연합선교회 우크라이나 단기선교 파송예배'는 김기호 목사의 인도로, 레너드 김 목사가 기도하고, 김수태 목사(뉴욕 어린이양교회)가 설교한 후, 결단의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조건없는 사랑"(요일4:16-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대원 기자

동성애 반대 PCUSA 8개 교회

축복 속에 새 노회로

지금까지 사랑 잊지 않고 소외된 자 살릴 것 약속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회 및 노회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동성애자 성직 안수 문제로 인해 교단의 방향성을 고심해 오다 지난 7월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남대서양대회에서 체코키노회로부터 대서양한미노회로 이전한 8개 한인 교회들의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9일(주일) 오후 6시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노회를 이전하는 교회와 떠나 보내는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됐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 교회는 미국 동남부 소재 5개의 조직교회와 3개의 개척교회로 베다니장로교회, 조지아한인장로교회(김삼영 목사), 예수소망교회(박대웅 목사), 로렌스빌장로교회(김창환 목사), 차타누가시온장로교회(김대왕 목사), 라그렌지한인장로교회(이내웅 목사), 사바나한인장로교회(남윤상 목사), 발도스타한인제일장로교회(김세준 목사) 등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체코키노회의 총무 레베카 블랙웰 목사는 "에스더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동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99%의 편안함을 버리고 1%의 생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이들이다. 대서양한미노회로 이전하는 교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영사를 전한 대서양한미노회 조남홍 사무총장은 "5년 전 한미노회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다. 그때 이름을 대서양한미노회로 지어 뉴욕부터 플로리다까지 다 품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수년간 배우고 익혀온 것들이 있다. 교단을 위해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회를 본 박대웅 목사는 "노회 이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토론과 법적 절차를 위해 힘써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우리는 노회를 이전하지만 여전히 같은 미국장로교단 안에 속해 있다. 앞으로도 이들 노회와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을 떠나 보내는 노회를 향해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나선 최병호 목사는 "3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 그 딸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돌봐준 체코키노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새로운 생명을 임태할 것이다"라며 체코키노회에 감사장과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

김대원 기자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효능 찬사 앵콜 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9월 15일까지)

프로모션 B (9월 15일까지)

프로모션 C (9월 15일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오리지널 8병도 100불)

100불

100불

50불/ea
+ tax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트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트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通

신간 추천

숨겨진 찬송이야기

김남수 | 아가페북스 | 280쪽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배경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 찬송가에 실제로 얹힌 사연이 그리도 많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모를 것이다. 더구나 복음성가에 밀려 점점 더 부를 일이 없어지는 요즘이기에, 이 책이 들려주는 찬송가에 얹힌 작사자의 고백과 간증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준다.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

폴린 호가스/김진선 | 성서유니온선교회 | 2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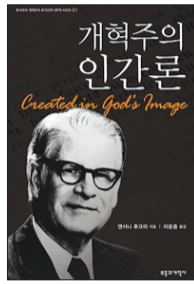
이 책은 종종 오용되고 남용되는 텍스트로서 성경의 능력을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며 자유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경의 능력을 탐험한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을 대할 때 본분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단조롭게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개혁주의 인간론/구원론/종말론

앤서니 후쿠마/이용중 | 부흥과개혁사 | 총3권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신학의 핵심적 주제에 대한 해설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교리인 인간론(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구원론(은혜로 받는 구원), 종말론(성경과 미래)의 신학적 기초를 명쾌하게 가르쳐 준다.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그렉 로리 | 토기장이 | 359쪽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美 크리스천들을 사로잡은 그렉 로리의 최신간. 저자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가 일곱 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밑바닥 삶을 전전하다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한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은 왜 狂人 히틀러에 농락당했나

나치 시대의 기독교 분석한 <권력과 신앙>

500여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나라다. 이후에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이어지며 '교양있는 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해 왔다. 그러나 400여년 후,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등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당시 독일교회도 나치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가 협력했다.

기독교 문화운동가 추태화 교수(안양대)가 쓴 <권력과 신앙(Macht und Glaube·씨코북스)>은 나치가 기독교를 어떻게 정치에 이용했는지, 일부 교회는 나치의 '사이비 기독교 정책'을 어떻게 옹호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등을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 배울 점들을 찾고 있다.

추태화 교수는 나치 시대를 단적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탄압한 시대"였다고 표현한다. 나치의 웃을 입은 기독교와 나치에 부역한 '교회기독교인'들이, 나치에 반대하고 저항한 '고백교회 목사와 교인'들을 탄압했다는 것. 저자는 "국가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독일에서, 나치의 기독교 정책이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이를 분석한다.

히틀러에게 기독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지만, 기독교를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는 반기독교적이었다. 히틀러의 철저한 이종성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가 기독교 신자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치에게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제거의 대상이었고,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몰아내고 새로운 종교, 즉 '게르만 신앙'을 세우려 했다.

나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국가교회'를 세워 독일을 지배하려 했고, '강력한 국가'를 원하던 일부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곧 민족이다'로 바꿔 버렸다. 그들의 '독일신앙운동(DGB)'은 민족 전통 안에 스며있는 종교적 신비성과 상징을 기초로 정치적 신비화를 꾀하고, 독일 국민의 삶 깊숙이 배어있는 기독교 전통을 토착적 요소로 교체하려 했다. 이들에게 '민족'은 곧 하나님이였다.

그들은 적대국 종교이지만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장악해 세계를 제패한 '영국 국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공격했다. 제국기독교인들은 독일교회가 너무 교리적이고 체계에 굳어있어 민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과 영적 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보낸 것은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동체적 삶을 '교회'가 아닌 '나치당'에서 찾으려 했다.

신학적 영역에서도 '기독교-독일신앙운동'을 통해 침투해 들어왔다. 기독교론과 성령론, 종말론이 나치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됐고, 부활절과 성탄절, 성령강림절까지 훼손시켜 버렸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편견에 사로잡힌 망상으로 폄하됐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독일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유대인 학살에 활용했다.

제국기독교가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는 결국 탄압받기 시작했다.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당과 내무부·법무부 등 내각, 경찰과 제국기독교인들까지 여기에 앞장섰다. 교단은 장악당했고, 신학대 교수와 학생들은 친나치 단체 가입을 강요당했으며, 목회자들에게는 '충성 서



권력과 신앙 추태화 | CKoBooks | 376쪽

약을 시켰다.

그러자 저항도 시작됐다. 교계에서 니벨러와 디벨리우스, 나치에 의한 최초의 순교자 슈나이더에 이어 신학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와 폴 틸리히, 디트리히 본회퍼와 헬무트 틸리케 등이 나섰다. 가톨릭도 저항과 순교로 맞섰다.

특히 슈나이더 목사는 나치의 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다 네 차례 투옥됐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감자들을 위로했지만, 나치 깃발에 경례를 거부하다 독방에 감금됐고, 약물로 독살됐다. 그의 순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됐고, 본회퍼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바르트는 나치에 저항한 고백교회 결성과 바르멘 신학선언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히틀러에 대해 충성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학에서 해임되고 추방당했다. 1933년 그의 글 '오늘의 신학적 실존'은 고백교회의 신학적·정신적 기초가 됐고, 교회의 타협·무기력·침묵을 깨우는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교회는 결코 사람과 독일 민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혈통과 인종이 아니라, 성령과 세례에 의해 구별된다."

이러한 저항 끝에 연합국의 승리로 나치는 항복했고, 독일 기독교계는 나치에 지배당한 제국기독교총회(DEK)의 이름을 바꾸는 일부러 참여와 자체 평화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저자는 "교회는 시대와 소통하지만,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며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경에서 생명력을 끌어올릴 때 가장 교회답다"고 정리한다. 정치세력이 기독교를 왜곡할 때 교회의 대응과, 구체적 정치권력 앞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이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대선을 앞둔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진 숙제이기도 하다.

-저자 추태화 교수는?

단국대 국어국문학(B.A.) 독일 뮌헨대 독일문예학 및 기독교문학(M.A.) 아우크스부르크대 독일문예학 및 신학(Dr.Phil.) 현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시대와 기독교문화학, 21세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망, 101가지 이야기 신학 등 저술

이대웅 기자

선교하는 교회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이 주 전, 교회의 현역 시무장로이셨던 한 장로님 내외분의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했다.

교회의 현역 시무장로이실 뿐만 아니라 한창 일하실 나이의 현역 의사이신 장로님 내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접고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은 많은 성도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그래서 장로님의 파송식에는 많은 성도가 나와 함께 축복했다. 온 교우들이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장로님의 온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그 여운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의 시찰회가 있어서 롱비치의 한 교회에

서 모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사 파송식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 가족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시찰회의 여러 목사님이 함께 감격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흔치 않고 그런 헌신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열정은 조금 특별하다. 그 장로님 내외분에 이어서 교회의 중직인 또 한 가정의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연세가 적지 않은 한 권사님은 5년 정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중이다. 그 외에도 내가 아는 여러 일꾼이 선교에 헌신하며 준비를 다져가고 있다.

우리 교회만한 크기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지원자들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범이 되는 귀한 분들이다. 이 일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담임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빠져 나가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개교회 중

심의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란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이민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처럼 남다른 선교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들어 쓰시고자 하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열방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로, 또 이 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선교의 바람은 틀림없이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의준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랍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 길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아름다운 시 한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먼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의 인생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길과 삶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5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10리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끝까지 동행하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십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여자는 거울과 같이 살고 남자는 지갑과 같이 산다"는 말을 살아가면서 실감한다.

이웃에 사는 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는 도민회에 부부가 같이 가게 됐다. 본인이 사회를 볼 예정이라 남보다 좀 일찍 가야 해서 아침부터 아내에게 서두르도록 일러 두었다고 한다. 떠날 시간이 임박해 자동차 엔진을 켜 놓고 빨리 나오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자 화가 난 아내가 차에 오르면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나도 여제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는데 무슨 도민회고 사회고 하며 나를 묶느냐"는 불평이었다.

그 말에 화가 난 정 씨가 "내가 며칠 전부터 미리 말했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 옛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는 것이 뭣이 잘못이야" 하자, 아내의 "누가 잘못이라고 했어?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혼자 가든지, 아니면 여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아서 기다려야지. 그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 내가 무슨 기분으로 가겠어"라고 했다.

혈압이 오늘대로 오른 정 씨는, 운전대를 확 틀어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부부 싸움 태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간 서로 말을 안했다고 한다.

여자는 예쁘게 보이려는 본성이 남자보다 강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는 더 신경을 쓴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화장품을 몇 겹으로 바르고 긴 눈썹을 붙이고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손목에 채우고 또 그 모임에 맞는 옷을 찾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옷에 맞는 신을 골라 신는다.

그리고 또 한 번 거울에 앞뒤를 비

여자는 거울, 남자는 지갑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보니 지갑은 터질 지경이다.

나는 지갑이 없어서 망신당한 일이 몇 번 있으나 여기선 두가지만 털어 놓으리라.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관련이 있는 분들께 연락해 한 식당으로 불러냈다. 가격은 보지 말고 맛있는 것을 시키라고 큰소리를 쳐서 음식이 푸짐하게 나왔다.

늦도록 옛 친구들의 근황과 한국의 상황을 들으며 흥분하다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지갑을 찾았으나 이것이 웬일인가! 지갑이 없었다. 할 수 없이 한 친구를 불러 도움을 청해서 그의 신용카드를 긁었다.

또 한번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 현관문에 'Final Notice'라고 적힌 우체국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한국에서 온 소포였는데 이것이 나를 급하게 만들었다. 한국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우체국으로 달려가 내 차를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어 직원에게 쪽지를 보여주자 내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그래서 지갑을 찾았으나 없었다. 몇 번이고 뒤지고 또 뒤졌지만 지갑이 안 나와 염치를 무릅쓰고 직원에게 사정했다. 내가 본인이 틀림없다고. 그러나 결국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본인인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줄 수 없다며 상자를 안으로 들여놓고 다른 손님을 받는다.

나는 돌아오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미워했는지 모른다. '어떻게 운전 을 하면서 면허증도 없이, 그리고 우편물을 찾으러 오면서 지갑도 안 챙기고 올 수 있나?'

여자는 거울을 자주 보고 흠어진 곳을 고쳐며 아름다움을 계속 지니고 남자들은 지갑을 지참해서 필요할 때 쓰면서 나처럼 망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취보기 때문에 외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정상이다.

어디나 미인이 섞이면 그 분위기는 부드럽고 웃음이 넘치는 것이 사실이다. 들리는 말에는 뒷간이 변소로 바뀌고 거울이 나오면서 여자를 위해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반면, 남자의 특징은 여자보다 적극적이고 베푸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베푸는 상정은 바로 지갑이다.

몇 주 전에 친지들의 모임에서 저녁 때가 되자 성이 김 씨인 한 친구가 "오늘 저녁은 내가 쓴다"고 하자 "아! 김 사장 관찮다" 하고 큰 함성이 터졌다.

사실 김 씨는 그가 속한 기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성의껏 기부한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친구가 많고 또한 존경을 받는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잘 쓸 줄 아는 사람,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쓰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다.

근래는 지갑의 용도가 달라진다. 그 안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 것 다 들어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신용카드 외에 각종 회원증, 명함 등을 넣어서 다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인생의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을 수록해 놓은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매뉴얼이요, 지표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품위를 고양시키기 위한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말들이 담긴 고전으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소중한 데에 반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속에 담긴 풍성한 지혜를 습득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업이나 기업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컨설팅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문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석학들로 구성된 컨설팅 회사들은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철학, 수학, 통계학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업이나 사업체에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따라 경영되는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큰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이나 사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서 컨설팅 회사에 경영조언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상의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원리와 법칙보다 상위의 원리나 법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이 최상의 원리와 법칙이 수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사용하면서 컨설팅을 받는 수고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 데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세상 경영원리를 수록한 성경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지... 성경으로부터 인생의 컨설팅을 받는 데는 지불할 돈이 필요없습니다. 온 우주만물을 통틀어 최고의 석학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인생의 경영원리와 방식이 주옥같이 기록된 성공과 성취의 보고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좋은 책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읽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매일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당일 베스

트셀러가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 읽어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베스트셀러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통찰력과 직관에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토록 탁월한 작가들이 결론으로 제시하는 원리와 법칙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접해본 내용들이었음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결코 탁월한 작가들이 쓴 훌륭한 책들을 평가절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 세상을 통한 최상위의 원리와 법칙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말로 모든 영역의 성공과 성취에 있어 0순위의 인생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보다 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 성경연구를 통해 다루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보장해 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오류와 이단(4)



신현국 목사
에반젤리야대 총장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행1:7)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단은 구체적인 재림 날짜를 발표해 신자들의 긴박감을 고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3세기에는 몬타누스가 그의 고향 Pepuja를 재림 장소로 예언하며 재림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으며, 20세기 이후 재림 예언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호와의증인은 수차례에 걸쳐 시한부 종말론 낱말하며 재림 날짜를 변경해 왔다.

교주 Russell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B.C. 4,126년으로 잡은 뒤 그로부터 6000년 후인 1874년을 재림 날짜로 공포했으나 재림이 이뤄지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기간’이라며 40년을 추가해 1914년을 재림의 해로 정했다. 이 역시 이뤄지지 않자 그의 뒤를 이은 Rutherford는 재림 날짜를 1925년으로 수정했다. 그 후에도 여호와의증인은 계속해서 그들의 계산을 수정해 재림 날짜를 변경해 왔다.

이러한 시한부 재림론 소동은 한국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났다. 1935년 만주 용정 중앙교회 목사 황국주는 “예수님의 목과 자기의 목이 바뀌었으므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며 전국을 누볐다. 박태선은 1955년 남산 천만집회를 통해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신자들을 미혹해 경기도 소사에 신양촌을 형성했으며, 문선명은 자신의 출생을 재림 예수와 연계시키며 자신을 통해 성약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일로 선포했던 이장립을 비롯한 재림파들의 극성은 지금도 물 밑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단의 발생 및 형성은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나 종족의 원시종교, 토착종교의 관습과 이교적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쳐 복음이 그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

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 한국의 사마니즘은 외래종교(불교, 유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충돌없이 이들을 흡수하거나 변형시켰다. 그 결과 외래종교의 순수성은 퇴색되고, 사마니즘적 요소가 이들 종교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 종교사학자들과 비종교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국의 사마니즘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신앙으로, 습관, 언어, 심성에 이르기까지 민족 생활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사마니즘의 사만은 ‘흥분하다’는 의미의 통그스어 ‘Saman’에서 유래했으며,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만주어 ‘Samarambi’와 몽고어 ‘Smoro-moy’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마니즘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고대 사회에서 거행된 영고, 등에, 무천 등의 제천의식 역시 춤을 추고 노래하며 흥분 속에 주문을 외우며 길흉을 점치는 등 사마니즘에 바탕을 둔다. 사만은 흥분의 극한상태, 몽롱한 반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길흉을 말하고 비정상적인 세계를 총동적, 감정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외래종교를 흡수하고 혼합하며 민간신앙으로서 명맥을 이어 온 한국의 사마니즘은 한국 민족의 감정과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감정을 앞세워 극단적 흥분과 황홀한 반무의식 상태로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며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것을 정상적인 종교현상으로 여기는 것 역시 사마니즘의 자장 안에 든 한국교회의 위험한 한 단면이다. 한국 기독교는 사마니즘적 요소가 기독교 안으로 스며 들어와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이단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 주장하며 배타적 구원을 이야기한다. 한국 이단 종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타난다. 박태선은 ‘동방의 해 뜨는 나라’(계7:2)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사41:2)의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1960년대의 이단들과 불건전한 부흥사들은 단군의 단을 성경의 단 지파와 관련지어 우리 민족이 단 지파와 관련이 있다는 역설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민족에 상관없이(롬10:12-13)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계속)

포도나무 예수님

선찬식을 떡과 포도주로 제정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 가운데 떡과 포도주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도 첫번째가 “생명의 떡”이고, 마지막 일곱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생활과 밀접한 포도나무와 포도, 포도주와 포도원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식물 중의 하나인 포도나무는 낙엽성의 덩굴 식물로서, 전 세계에 600여종이 있습니다. 이 포도의 원산지는 서아시아의 카스피해 남부에서 터키에 이르는 지방으로, 고대의 이집트 벽화나 성경의 노아의 이야기에 포도를 경작하는 것과 포도에 대한 기록 등을 보면,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경작된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올리브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요한 과수였습니다. 경제적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곡물의 다음이지만, 그 재배에 많은 손이 가



민중기 목사
추현선교교회

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경작했습니다.

기원 92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곡물 증산을 위하여 로마제국 내 여러 주에 포도 재배를 제한하도록 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 93년에 그 포고를 취소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토양은 포도 재배에 적합해, 거의 전역에서 포도를 재배할 수 있었고 포도주는 묽게 타서 음료수로 상용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

회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을 내어 저장하기 위해 포도를 포도주틀에 썰어놓고 밟는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좋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지 못하는 포도나무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거짓 성도를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열매를 맺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물 2층) LA, CA 90006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HEALTH & LIFE

여름철에 권할 만한 10대 슈퍼푸드

키위, 아스파라거스, 딸기, 시금치, 레몬 등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여름철은 그런 점에서 축복받은 계절이다. 각종 과일과 야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선정한 '특히 건강에 좋은 여름철 슈퍼푸드 10가지' 를 소개한다.



키위

달콤한 맛을 주면서도 당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같은 양의 바나나보다 칼륨은 더 많이 함유하면서 당분과 열량은 낮다. 중간 크기 키위에는 당분이 단지 7g만 들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섬유질도 풍부하다.

아스파라거스

뼈를 튼튼하게 해 주고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K의 보고다. 또 항산화물도 많이 함유돼 있다. 심장 질환과 당뇨병, 암 예방에 좋다.

레몬

향이 좋지만 칼로리는 낮다. 레몬 한 개를 갈아 주스를 만들어도 열량은 겨우 12칼로리에 불과하다. 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함유돼 있다. 또 항산화물도 풍부하다.

시금치

항산화물 및 항염제,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시력을 향상시켜 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 준다.

수박

당분은 낮으면서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하다. 저열량 먹을거리로 최고의 여름 음식이다. 연구 결과 수박은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딸기

비타민C가 풍부하다. 하루에 한 컵 분량을 먹으면 비타민C 일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항산화물도 함유돼 있으며 시력 향상에도 좋다.

블루베리

섬유질, 비타민C, 항암 물질들로 가득하다. 연구결과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한다.

누에콩

모든 콩이 건강에 좋지만 누에콩은 특히 여름철에 나온다. 콩에는 섬유질, 폴산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콜리플라워(꽃양배추)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도 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항암 물질들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를 섭취하기 위해 먹을 필요가 있다. 이 물질들 때문에 향이 자극적이지만 그 향이 발암물질에 위와 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 호르몬에 따른 암을 예방해 준다.

버찌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짙은 빨간 색을 띠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s)이라는 물질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항염 효능을 갖도록 해 준다. 아스피린보다 버찌가 진통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옛 우리 선조들도 이미 '슈퍼푸드'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조선시대 <이조실록>과 <고금문헌> 등에 따르면,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나뭇의 건강식, 즉 슈퍼푸드를 섭취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여름철 슈퍼푸드는?

오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오이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감증해소를 도와준다. 또한 비타민 B, C가 가득 들어있어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효능까지 갖고 있다.

아오리사과: 사과라고 하면 보통 가을이 제철인 빨간 사과가 먼저 생각나기 마련.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푸른색 사과인 아오리사과는 오이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식품이다. 비타민 C와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장을 깨끗이 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여름철 잦은 배탈을 막아준다.

참외: 냉장도가 없던 옛날엔 음식이 쉽게 상해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항균성분이 있는 참외를 섭취하면 식중독을 치료할 수 있었다. 또한 얼굴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을 만드는 독소를 없애는 효능과 무더위에 지쳐 피로해진 몸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다.

미역: 미역은 피를 맑게 해 주면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막고 위벽과 십이지장을 보호해 준다. 산모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선 미역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선조들은 미역국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특별히 시원한 미역냉국으로 건강도 찾고 몸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최적의 입지와 서비스로 높은 선호도 자랑하는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

천혜의 자연 벗삼아 수련하기에 안성맞춤

아름다운 태평양 연안을 따라 장미의 도시, 파사데나에 위치한 윌리엄케리국제대학. LA 다운타운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는 물론 자연이 빛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이 대학의 수련회장은 편안한 휴식 속에서도 현대선교의 거장 故 랄프 윈터 박사의 체취를 찾는 크리스천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샌가브리엘 산 그늘 아래 파사데나 북동쪽에 위치한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은 총 면적 35에이커에 달하는 대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적의 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의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최고의 명소인 디즈니랜드와 다저스경기장 등 주요 명소와의 접근성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 머무는 기간동안 관광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은 예수전도단을 비롯해 벨벳교회, 영락교회, 새길교회 등 여

러 선교단체들이 연간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등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수련회장을 이용한 최미란 권사는 “대회 기간 내내 신선한 재료로 다채로운 요리를 대접받아 감사했다. 특히 저녁마다 한국 음식이 나온 것은 참석자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면서 “음식 맛도 훌륭했고, 저녁식사 때엔 줄 서서 음식을 받지 않고 식탁에서 서브 받도록 배려해 줘 스태프의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최 권사는 또 “깨끗하게 꾸며진 기숙사 객실과 투숙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스태프들의 친절함과 편안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이템까지 더해 행기를 타고 오느라 지친 몸을 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련회장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과 식당

은 이용객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준다. 프랜차이즈 홀은 나무 바닥과 넓은 공간으로 공식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장소다.

피어스 식당은 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신선한 샐러드 바와 따뜻한 음식, 맛있는 홈메이드 빵과 과자들이 매일 제공된다.

차이나라운지는 건물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모닥불을 쬐며 함께 훈련받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일워드와 타운센드 게스트룸에는 수련회 또는 훈련을 위해 투숙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1~4인용 침실이 준비돼 있다. 편안한 잠자리는 쾌적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며 더불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퀴드는 캠퍼스에서 결혼식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평화로운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매우 고요한 곳으로 잔디에 앉아 묵상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캠퍼스의 상징적인 건물인 맥가브란. 이곳은 역사적인 건물로서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이곳에 있다.

이밖에도 수련회장 내에는 방문객에게 오픈돼 있는 라투렛도서관을 비롯해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코트, 축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도 마련돼 있으며 무선인터넷도 구비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다.

수련회장 이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 에서 예약하거나 이메일(conference@wciu.edu) 또는 전화 (626) 398-2415로 연락하면 된다.

▷ 윌리엄케리국제대학 수련회장
1539 E. Howard St. Pasadena, CA91104



LIFE IS TRAVEL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터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3월 11일 (신청가능)/4월 1일 (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 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하시면 단체 특별 할인됩니다
성지연구소에서 제공한 성지순례 지도 & 자료집을 드립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속 홀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Q.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기간 판매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온! 자동차 연료 커버 \$30 당격안 음이온+음향인식장치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클릭 통통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선 안미키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데오 캘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산염,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식재료 도·소매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참숯 (바베큐용)

각종 Tea (커피, 등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많은 미음에서도 식욕억제 없애며 내장비만 &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문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일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제작, 컴퓨터 수리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음성이 없으신 음성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작문의 213.814.134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건강 핸들커버, 안마의자, 음이온공기청정기, 음이온형광등... 건강제품은 여기 다 있다

자동차 핸들에 사는 세균 화장실 변기의 25배란 사실 아십니까?

카멜레온 실리콘 핸들커버, 음이온 발생으로 건강에 도움

접지력 향상으로 편안한 운전도 도와

자동차 핸들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수가 화장실 변기보다 25배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나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핸들과 핸들 커버에 서식하는 세균은 5300RLUs(Relative Light Unit·청결도 검사단위)이며, 발매트에서는 3000RLUs,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70RLUs로 측정됐다. 화장실 변기에서 검출된 세균은 200RLUs로 나타났다.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핸들에 청결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청결과 기능이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카멜레온 실리콘 핸들커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출원 중인 이 핸들커버는 의학용 고급 실리콘 재질에 3%의 토르말린 광석 분말을 결합해 제작됐다.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불리는 토르말린 광석은 제균효과 및 탈취효과가 있으며, 강력한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나와 건강에 이롭다.

일반적으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숲 속이나 폭포 주변에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이온은 공기 중의 비타민이라고 해, 인체 혈액순환을 돕고 신선대사를 촉진시키며, 전자파와 먼지를 중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 핸들커버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월드 고운기 디렉터는 "접지력이 좋아 미끄러지지 않고, 파킹할 때 편하다. 특히 루머티스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며 "아픈 분들이 써보고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며 극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핸들커버는 조금만 쓰다 보면 냄새가 심해지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한 반면에, 실리콘으로 구성된 이 핸들 조직은 촉촉해서 박테리아가 진입하지 못한다. 또한 위생적이며 무취하고 알레르기 반응과 독성이 없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멜레온 실리콘 핸들커버는 색상이 다양하며, 사용 기간은 10년에서 반 영구적인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고 디렉터는 "구매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물건을 구입하지만, 사용해 보고 나서 물건이 좋아 몇 개를 더 사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곤 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핸들 커버 뿐 아니라 안마의자도 주목받

는다. 웰빙 열풍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건강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부모님 선물로는 안마의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FUJITA에서 내놓은 안마의자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허리가 안 좋았던 고 디렉터는 원래 A제품 안마의자를 7000불에 구입해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고 개인 가격에 비해 성능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이내 후회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FUJITA 안마의자에 매료된다. FUJITA 제품은 독일 기술에 유명한 타이마사지 기술이 접목돼 만들어졌다.

"1시간 30분 동안 6가지 오토매틱 안마를 받은 후 '바로 이거다'했죠. 다른 회사 제품들을 많이 체험해 봤지만 FUJITA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전문가에게 마사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안마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안마 시스템이 알차게 구비돼 있어, 굉장히 편하다.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에 가격도 3900달러로 일반 안마의자의 반값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는 현재 FUJITA 안마의자 LA 총판 딜러를 맡고 있다.

"안마의자를 파는 어떤 쇼핑몰에서 FUJITA 제품을 들러리를 서고, 다른 고가의 제품만 더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고가의 제품일수록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이 FUJITA 제품을 써본 사람 중에 사용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

또, Heaven Fresh에서 나온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있다. 이 제품은 캐나다 제품으로 박테리아를 잡아주는 공기청정기로 알려졌다. 이 제품 역시 가격이 타 제품에 비해 저렴하고,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팔리고 있다.

음이온 형광등은 30달러부터 250달러대까지 크기별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고 디렉터는 "비싸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며 "과대광고에 속아서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월드는 LA한인타운 웨스턴 8가의 로테오갤러리 안에 있다.(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문의: 323-454-7872

토마스 맹 기자



스마트월드 고운기 디렉터(우)와 고 다니엘 세일즈매니저(좌)



카멜레온 실리콘 핸들커버는 다양한 색깔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다.



Fujita가 개발한 최고급 안마의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양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미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플랜은 없다!

무제한 통화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집전화도

휴대전화도



+



2대 적용

지금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아이토크비비 공식 홍보대사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행사기간 2012년 9월 17일 까지

글로벌 플랜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24.99/월

무료 부가서비스
아·이·토·크·비·비 iTalkM 드디어 나왔다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번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국제전화를
마이코리아넘버 My Korea Number**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번호를

[30%]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전환]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1개월 무료 무제한 아이토크글로벌/iTalkM: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12개월 계약 플랜에 가입한 신규고객에 한하며, 1개월 무제한 계약기간 만료 후 적용됩니다. 무제한 아이토크글로벌은 13개월 동안만 적용되며, 그 이후 매월 500달러로 자동변환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한 발송된 총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핵심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에 징구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 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환불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시 대신 안면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00대(7에이커)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리무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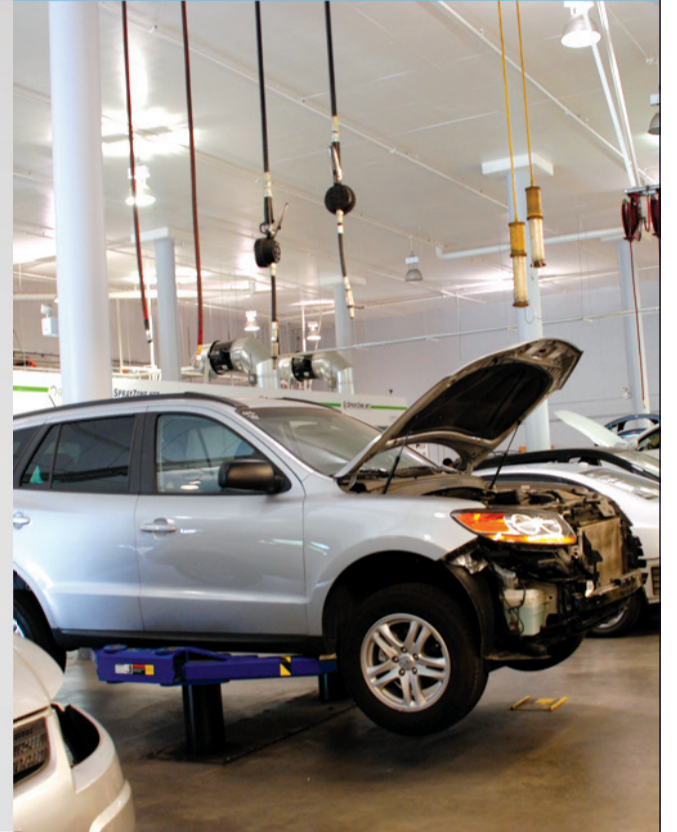
에쿠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세계에서
단 한대뿐인 에쿠스 리무진 이
모시려합니다.



SUPER STORE

“품격있는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렌탈 카



평생
무료 세차

CAR WASH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9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9월 1일~30일)



\$579 + TAX(STK.058106)



2013 EQUUS SIGNATUR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60,150 / Residual: \$27,068 / T.D.O: \$5,999
No Security Deposit /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012 GENESIS



\$255 + TAX(STK.207604)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35,260 Residual: \$16,572
T.D.O: \$4,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119 + TAX(STK.465125)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20,970 Residual: \$10,066
T.D.O: \$3,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O.A.C)



9월 한달간 무이자 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Sales 매튜 정
714,797,3571



고객상담 제니 김
310,749,7599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